

이재명 “국민 대도약 시대…국력 5위·소득 5만달러 달성”

DJ IMF 종식 선언했던 기아차 소하리 공장서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양극화 등 4대위기 극복…설 전 25조~30조 추경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능한 추진력과 실용적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며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장소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특히,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지난 2001년 이곳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체제의 조기 종식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국난 극복 현장에서 국가 비전을 제시, 자신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탈진영·탈이념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중부세 시정교과 마련까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대 위기로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변화·기술경쟁 ▲글로벌 패권경쟁을 꼽으면서 우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인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의료 확충해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양극화 위기와 관련해서는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뒤,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패권 경쟁 구도와 관련,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 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크기는 하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세균 이재명후원회 후원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후보 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광주시장 “지금은 대선에 모든 역량 집중”

지방선거 입장은 이후에 밝힐 것
예비후보 등록 미루고 시정 집중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은 대선일인 3월 9일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4일 출입 기자단을 만나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선이 우선”이라며 “대선 전까지는 지역 숙원사업의 대선공약 반영,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 코로나19 방역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의 미래가 걸린 군 공항

이전, 달빛 고속철 조기 착공, 광역 경제권 구축, 인공지능 2단계 사업, 미래 신성장 산업 등 지역 숙원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데도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 본격적인 지방선거 대비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일부의 추측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에 등록할 경우 시장직무는 정지되고, 후원회 및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양대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사람이 많고 더 나아가 일부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묻는다”면서 “말은 안 해도 올해 선거가 있으니 시 공직자들도 시장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여러 구도를 볼 때 결국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대선 승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의 미래가 걸린 대선을 앞두고 지방선거에 각자 매진하다 보면 자칫 지역 내 분열과 갈등만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 1번지 광주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해찬 “이재명은 탁월하고 준비 잘 된 후보”

“일하는 솜씨 신속하고 정확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4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제가 당정 협의를 하면서 주먹문제나 교통 문제 같은 정책으로 많이 논의를 해 봤는데 이 후보는 굉장히 탁월한 식견과 준비를 아주 잘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미래시 민공정위원회 출범식에서 “흔히 ‘일머리가 좋다’는 말을 하는데 이 후보는 정말로 일하는 솜씨가 대단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아주 매끄러운 그런 도지사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다. 여러 분야에 관해 정책적인 준비를 많이 했다”면서 “우리가, 어디에 내놓아도 토론을 잘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후보를 가진 것은 당으로

서도 나라로서도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제4기 이재명 정부의 창출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갈림길에 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저는 대선을 여러 번 치러봤는데 이번 대선처럼 엄중한 선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당을 잡을 없이 잘 이끌어오신 송영길 상임 선대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아주 든든하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선대위 개편 문제를 놓고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을 겨냥한 듯 “저쪽은 저렇게 자중지란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64일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가 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결코 자만하지 말고, 방만하지 않게 선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골든크로스? 자만경제령 내린 민주…국힘 보란듯이 ‘원팀 행보’

정세균 후원회장 가세

오늘 이낙연과 광주서 비전위 회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만 경제령”을 발령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선부론 지지율에 도취해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감과 함께 대선까지 두 달 가량이 남은 상황에서 표심은 언제든 출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 후보 지지율이 최근 일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30%대 박스권에 머무는 가운데 최근 윤 후

보와의 일부 격차 확대는 국민의힘 내홍에 따른 반사효과라는 평가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대위 디지털대전략위원회인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 장관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선대위 입장에서는 40%를 돌파해서 대세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현재는 골든크로스가 수치상으로는 나타나고 내용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새해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민생 정책’을 발표,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경쟁으로 지지율 상승 폭을 키워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원팀 행보’를 가속화하

며 내부 지지층도 더욱 공고하게 붙들어 매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내용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 힘과의 차별화 전략도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보란 듯이 ‘원팀’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선을 앞두고 단합된 여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정 전 총리는 이날 후원회 출범식에 나와 “희망저금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주셨듯 국민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과 4기 민주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5일 오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겨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